

##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른 브라질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변화\*

윤현덕(송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

- I. 서론
- II. 브라질 산업정책의 변화
- III. 브라질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의 변화
- IV. 브라질의 중소기업현황과 지원제도의 특성
- V. 브라질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 VI. 결론

### I. 서론

중소기업은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안정성장기반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선진국을 막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주요 당면 중책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유연성에 있어서 탁월함을 인정하여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구성체로 인식하고 있다(GEM 2000, 2001, 2002).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과 국민경제의 재생산과정에서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과 실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Heon-Deok Yoon(Soongsil University, hdyun@ssc.ac.kr), "The Change of Brazilian Industrial Policy and SMEs' Promotion Policy with the Advent of Neo-Liberalism".

정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 등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불리성의 시정과 형평성을 주요한 과제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중소기업이 경제구조의 변동, 즉 수요변동, 기술진보 및 임금상승 등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질 다원적인 기업 군이므로 그것이 지니는 문제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육성책의 수준과 방법은 국가 경제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인 영세성, 즉 인력, 자본, 기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브라질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1990년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브라질은 신자유주의 맥락의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브라질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나타나는 목표는 크게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참여 경제의 조성 및 지역간 균형 발전, 그리고 신경제의 적극적 수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과제로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국영기업 개혁, 기업활동 지원 정부시스템 강화, 중소기업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경제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서는 통신 산업의 구조조정, 기술개발 지원 등 민간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수요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브라질의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볼 때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제조업 강화와 수출증가를 들 수 있고,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현상,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브라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남미, 동아시아, 중동, 유럽 등 국가와의 쌍무 간 자유무역협정 확대 전략, Programa Fome Zero로 대표되는 계층간, 지역간 발전 불균형 해소 정책, 그리고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약점의 보완을 위한 적절한 산업정책 방향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가 과거 30여년간 장기간의 침체기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성장·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활력이 전체적인 경제와 사회의 활력증진에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중요한 국민경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공업화 초기과정에서 자주적인 중소기업 개발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제의 원동력 기반이 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21세기는 다품종의 소량화, 정보화, 소프트화를 지향하는 탄력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으로 소비수요는 고급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부문의 역할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적 인식하에서 본고에서는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따른 브라질의 산업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브라질의 중소기업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하여, 현 중소기업 지원 육성정책과 제도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 II. 브라질 산업정책의 변화

### II.1. 브라질의 산업정책 기초

브라질의 기본 산업정책은 수입대체정책을 표방하여 내수시장중심 발전정책을 취하여 왔다. 1930년대부터 핵심정책 기조로 일관성 있게 채택된 수입대체정책은 초기의 경공업분야 중심에서 1950년대에 이르러 중공업 분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그러나 수입대체정책의 한계와 급진적인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에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결국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면서 1960년대 들어와 수입대체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수출진흥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의 정책적 병행으로 브라질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 성장기를 맞게 된다. 철강이나 에너지개발 등 정부 주도형 대규모사업에 치중하여 성장을 유도하였으나 정부주도형 대규모사업과 국영기업들의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도성장기의 정부의 대규모사업은 공기업을 통하여 진행되면서 각 산업의 핵심 분야별로 공기업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주도형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수행하는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투자효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국제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투자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자본집약적 대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이후 브라질은 수출 진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을 강조하여 수출촉진을 유도하였으나 브라질의 수출진흥 정책은 주로 세제, 금융 면에서의 수출지원과 보조에 의한 수출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국제무역환경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대외경쟁력과 성장력기반의 약화 등으로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2년 외채위기로 브라질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되면서 종래의 수입대체정책에서 수출촉진정책으로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나 수출산업의 육성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브라질의 장기간에 걸친 강력한 국내산업 보호정책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입을 과다하게 경계함으로서 브라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수입대체의 비효율성으로 외화절약의 효과 또한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국내산업보호라는 명목하의 보호기간의 무한정 연장은 산업전반의 비효율성과 기술개발의 낙후성을 초래

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따라서 수출촉진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려웠다.

브라질이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의 외채위기 이전까지는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정도였으나, 이는 1960년대의 불황에 따른 유희시설의 존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1차 상품의 국제가격상승으로 수출의 호조와 수입의 안정성 확보, 국제무역환경의 호조와 교역량의 확대, 선진국의 대 브라질 투자확대 등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채위기와 더불어 국제수지 악화, 인플레이션 위기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수지개선, 물가상승 억제 등을 목표로 총수요억제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II.2. 브라질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브라질은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여파와 1980년대 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경제침체 국면은 더욱 악화되어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은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였다. 1990년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의 시장 개방화, 무역자유화, 민영화 등 일련의 경제 개혁 정책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폐쇄적, 자급자족적이었던 경제구조가 개방적이고 시장경제 지향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구조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로 보다 효율적이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가능해졌다. 콜로르 정부는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탈국가화(Programa Nacional de Desestatizacão: PND)를 발표,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 콜로르 정부가 중도하차하자 경제개혁과 민영화 노력은 정체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1995년 1월에 출범한 까르도주 정부의 경제 개혁 및 개방을 위한 헌법개정노력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여 국내외 기업간 차별철폐법안과 항만, 전력, 도로, 통신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정부의 독점 폐지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민영화의 가속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폐지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994년 7월에 헤알 플랜(Real Plan) 도입 이후 인플레이의 급격한 진정 및 경제적 안정 성장이 가능해지면서 민영화 노력과 함께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성화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결성 또한 역내교역과 대외교역을 증가시키고, 역내 시장이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유입과 민영화가 더욱 가속되었다. 까르도주 정부의 산업정책의 방향은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탈국가화와 시장경제 지향적인 경제의 운용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공기업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민영화 제1단계는 1994년까지 철강, 비료, 석유화학 등의 공업부문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단계는 까르도주 정부의 관련 헌법 수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전력, 항만, 통신, 도시가스 배급, 철도 및 도로 등 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력한 민영화정책은 적자를 기록하는 부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소시켰으며, 대규모 민영화로 장기투자를 포함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제수지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항만, 전력, 철도 등의 부문에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중·장기적 설비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생산시스템을 근대화하며 아울러 인프라 장비에 소요되는 정부의 지출비용을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지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브라질 경제는 헤알플랜 도입이후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어 1997년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위험수위인 GDP의 5%에 접근하는 등 불안요소가 있었으나, 고인플레이 진정 및 수년간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통신, 전력 등 주요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적극 추진되고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브라질 정부는 국영통신회사(Telebras), 상파울루 주립은행(BANESP), 상파울로주 전력회사(CESP) 등 14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책의 현

실화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MERCOSUL 출범에 따른 지역시장 규모의 확대가 브라질의 산업구조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MERCOSUL 시장의 부상은 통신, 전력, 광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특히 자동차산업의 역내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두드러진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외국인투자는 MERCOSUL 회원국 중 브라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국가간의 산업통합, 즉 산업의 재배치와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라인의 단일화, 국가별 모델 전문화, 일부 부품의 특정국 집중생산, 역내시장을 겨냥한 신규투자 등이 시도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개발전략이 근본적으로 지역통합을 통한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정책의 방향 또한 역내국가간의 균형있는 산업 재배치와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II.3. 브라질 산업정책의 목표와 방향

#### II.3.1. 브라질 산업정책의 목표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방향은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을 이루고 있다. 경제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문은 정부와 산업과의 관계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과거 산업정책의 주도자이자 산업 자체의 주인이기도 했던 정부의 역할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역할로서 시장을 조성하고 규칙을 엄격히 유지하는 관리자 입장, 즉 작지만 강한 정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중요한 추세로 인정하고 국내시장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라질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은 MERCOSUL(남미공동시장) 구축과 EU와의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개방화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인 쌍무 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적 시장여건을 전제로 한 브라질 정부의 경제개혁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방향은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강화, 참여 경제의 조성 및 지역간 균형 발전, 신경제의 적극적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ECLAC 2000; 2001).

첫째, 경쟁적 국내시장 조성 및 기업 경쟁력강화는 과거 상당한 제약 하에 놓여 있었던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와 진입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기업 중심의 경쟁적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기업 활동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제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며, 정보 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해 신경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참여 경제의 조성 및 지역간 균형 발전으로서, 이는 개혁과정에서 소외된 비공식 고용 부문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에 대한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왔고 또 경제 개혁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신경제의 적극적 수용은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에 대응한 산업정책 목표로서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선진 정보화 기술의 수용과 동 분야에서의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경제정책 개혁방향의 핵심은 글로벌화에 대한 확산, 기존 발전 모델에 대한 수정과 보완,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신경제 정책의 철저한 실현 등의 중요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수입대체정책을 오랜 기간 고수하였던 브라질에게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에 대한 저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화는 경제활동과 기술발전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산 방식, 부의 원천, 고용의 양태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추세로 이해한다.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화를 진행하고 있는 원동력으로서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 금융활동의 국제적 확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의 확산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환경의 변화이며 글로벌화 자체가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화에 직면한 브라질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1980-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경제정책이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으로 가능한 한 높은 수입 장벽을 만들어 외국제품의 국내 유입은 차단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브라질의 경제 모델로 운영되어 온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비록 초기에 성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보호주의 하에서의 국영기업 운영과 국내시장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결국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브라질 경제 모델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0년 이후부터 시작된 시장개방이 대폭적인 관세 인하, 수입허가제의 폐지 및 기타 장벽의 완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시장개방이 정부의 재정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역할축소,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진행되어 고인플레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대외 경제 부문의 폭발적인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개혁이 기존의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킨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의 분배,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등 해소를 구조개혁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적체는 브라질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II.3.2. 브라질 산업정책의 실현방향

브라질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정책의 총합적 목표는 경제의 질적 성장 하에 구체적으로 역동적인 고용창출, 절대

빈곤의 퇴치, 기회의 평등, 거시 경제적 안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하위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ECLAC 2000; 2001).

첫째, 건전재정의 정착으로서 정부 재정지출의 합리화, 공공 및 민간 국내저축의 확대, 정부부채의 공개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신용의 유지 및 강화 목표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 및 독과점 방지, 기업 경쟁력강화, 제품 경쟁력강화 및 지방의 경쟁력강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시장경제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브라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건 구비로서, 인프라의 확충, 생산성 제고를 위한 능력 계발, 기술 발전, 노사관계의 발전적 문화 정착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인 형태의 정부지원 범주로서, 특히 기존의 취약점으로 노정되었던 노사문제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넷째, 공공부문 역할의 적정화로서,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국영기업의 육성 강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시함으로써 강도 높은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목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국영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되 민간부문 경쟁력 저해 금지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부분적 민영화 과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총합적 경제정책 목표와 하위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신규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고용창출, 빈곤퇴치와 소 창업 활성화, 투자위험 최소화 및 예측 가능성 확대를 위한 경제 안정성 확보, 실질소득의 보장을 위한 인플레이션 안정화, 금리 하향 안정화 및 신용 확대, 특권적 지위를 배제하는 경제적 기회 균등의 실현, 시민경제의 확대와 공식 경제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 민주화, 천연자원의 보존 및 강화, 민

간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국영기업의 강화, 인프라 개선 및 낙후 지역의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 개발 등 구체적인 목표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 III. 브라질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의 변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 인식은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인식 방향이 바뀌게 된 배경은 우선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 등을 축으로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부문이 주도적 담당자로 부각되었다(Enterprise Research Institute for Latin America 1999; SEBRAE 2000).

개방화와 민영화의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에는 새로운 경제구조와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과거 30여년간 수입대체정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성장·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FUNCEX 2002).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활력이 전체적인 경제와 사회의 활력증진에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중요한 국민경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공업화 초기 과정에서 자주적인 중소기업 개발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제의 원동력 기반이 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 추진으로 고도 성장을 통해 소득의 증대와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도성장기의 산업정책은 대외 지향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수출기반확대를 위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기

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기조는 대기업위주의 정책 시행으로 대기업 부문은 급격하게 성장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위축현상을 확연하게 노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라는 국민경제의 이중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산업의 시장구조는 점차 독과점화 되었으며, 지역간, 부문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경제효율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부문의 취약성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산업연관관계에 있어서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정립을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의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및 수출증대 등을 통하여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었다. 특히 가용재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중소기업부문에 배정되는 등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환경개선과 조직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 환경의 조성책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 1, 2차 석유 파동기 등 국내외적인 격동 속에서 브라질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경제정책 자체가 축소, 위축되어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중소기업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의 기조는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자급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두어 졌으나, 이 시기에는 노동집약적 수출품이 국제무역상 비교우위를 상실하기 시작하여 수출품구성을 기술 집약적 제품 및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강, 기계, 전자, 석유화학 및 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정책 실행이 어려워져 브라질은 1980년대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기조는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소기업 지원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반시장적 보호정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

계정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려웠다.

1980년대 중반이후, 기업일선에서의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인상, 처우개선 요구가 거세어 지고, 고금리, 고임금에 의한 기업경영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기반이 본질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영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존립기반을 재구축하거나 경영관리를 혁신함으로써 급격한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과 계획은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중소기업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추진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Enterprise Research Institute for Latin America 1999; SEBRAE 2000). 또한 산업구조 및 세계시장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는 경제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실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농업가공, 전자, 정보통신, 기계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앞으로 세계시장 수요가 다품종 소량수요 중심으로 전환되고 완성품보다는 부품·소재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담당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는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강요하였다. WTO 체제하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쟁에 의거한 국경 없는 경제에서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 하여야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표방했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배양하는 정책기조로 전환되었다.

#### IV. 브라질의 중소기업현황과 지원제도의 특성

브라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중소기업은 국민의 생계기반일 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의 활력의 근원으로 인식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규모(Micro e Pequenas Empresas; MPE)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기업이 고용 및 생산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BNDES 2003; SEBRAE 2000). 브라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를 항시 등록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규모의 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ME(Microempresa)	제조업의 경우 항시 종업원 19인 이하,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9인 이하
PE(Pequena Empresa)	제조업 20인-99인 이하,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 10인-49인 이하
MDE(Media Empresa)	제조업 100-499인 이하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 50인-99인 이하
GE(Grande Empresa)	제조업 500인 이상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 100인 이상

브라질 연방헌법(헌법 제170, 179조에 따른 개정법령 9841, 1항, 05/10/1999)과 연방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MPE(Micro, Pequena empresa)는 법적,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노동, 세무, 행정, 복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특혜가 보장되어 있다(IBGE 2001).

최근 시행령(No. 5028, 31/03/2004)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를 종업원 수와 함께 매출액에 따른 추가적인 구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현실적인 중소기업의 정의와 구분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의 현실화를 꾀하고 있다.

MPE 기업군은 1995-2000년 기간 중 25%의 성장세를 보여 GE의 2.2%에 비해 숫자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BNDES 2003; SEBRAE 2000). 그러나 대부분의 MPE는 생계형 창업에 의한 기업들

로서 창업에 대한 높은 의욕이 파악되고 있는 반면에 경제, 사회적 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MPE 기업군은 전체 등록 기업의 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Micro의 비중은 93%로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그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중 Micro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 91.86%, 일반 상업분야는 96.76%,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97.26%를 차지하고 있어 브라질 경제와 사회의 큰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상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Micro기업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의 SEBRAE(Servico Brasileiro de Apoio as Micro e Pequenas Empresas) 통계자료에 의하면 MPE의 비중과 역할이 등록기업 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 GDP(Gross Domestic Product), 총 수출액 차원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MPE 기업군의 영세성과 기업경영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SEBRAE 2000; CEMPRE 2002).

<표 1> 기업규모에 따른 비중(CEMPRE 2002)

	MPE	MDE	GE
전체 등록기업 비중	99.33%	0.53%	0.14%
GDP	28.00	N/A	N/A
총 고용	39.58	N/A	N/A
총 수출액	12.40%	N/A	N/A

기업경영측면에서 이들 MPE 기업군은 가족주의적 경영관행으로 노사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이들 기업들은 주로 생산에만 전념하고 마케팅은 대기업이나 외국무역상사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브라질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때 중소기업의 비중이 과다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기업은 그 숫자나 역할에 있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물론 경제안정, 부의 균등분배, 자유경제의 촉진,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유지와 계층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MPE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브라질의 소규모기업이 크게 증대한 것은 80-90년대의 경제위기와 장기간의 고 인플레 경제로 인한 높은 실업률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소규모 사업의 창업을 통한 자립, 자영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경제 침체기간 동안 브라질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의 지원보다는 스스로 개척하는 자구노력이 매우 강한데 그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 기간 중 정부로부터의 제도적인 지원과 차별적 특혜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 경영관리, 생산 및 기술, 마케팅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신조례에서는 금융, 경영관리, 생산 및 기술, 연구개발, 정보관리, 공업안전, 오염방지, 마케팅으로 세분하여 유관기관들이 종합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의 중소 규모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적 집중화와 그에 수반된 독점자본의 형성이라는 장기적으로 발생된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발원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중소기업의 도산 원인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능력부족,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정부의 적절한 보호정책의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창업과 도산 현황을 보면 브라질 정부의 경제, 사회 및 산업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 규모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표 2> 브라질 기업의 창업 및 도산(SEBRAE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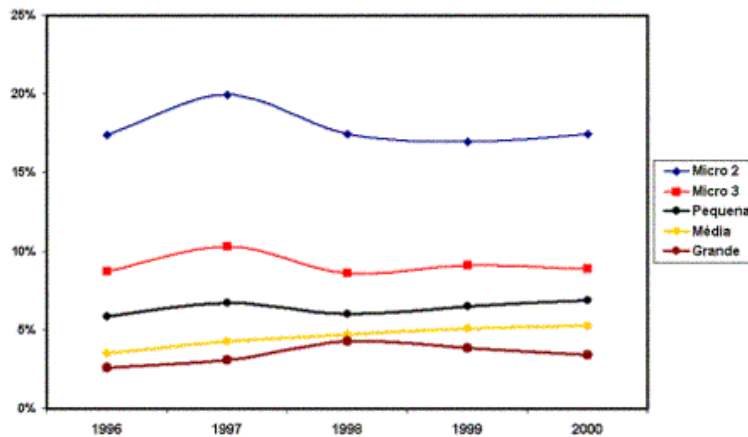
	Micro	PE	MDE	GE	Total
등록 기업수(1999년)	3,740,764	104,990	21,062	5,259	3,872,075
창업(2000년)	704,628	4,894	634	102	710,258
도산(2000년)	453,976	3,235	672	107	457,990
기업규모변화	-7,171	6,173	683	315	0
순 증가(2000년)	243,481	7,832	645	310	252,268
순 증가율(%)	6.51%	7.46%	3.06%	5.89%	6.52%
등록 기업수(2000년)	3,984,245	112,822	21,707	5,569	4,124,343



순수 등록 기업의 증가가 MPE기업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브라질의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과 제도가 MPE 기업군의 필요와 수요에 적절한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NDES(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e Social)가 2003년에 실시한 기업규모에 따른 신규창업과 도산 및 폐업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Micro 2와 Micro 3에 해당하는 항시 종업원 20명 미만의 영세규모 기업일수록 창업이 매우 활발함을 볼 수 있으나, 타 규모의 기업 창업 추세는 1996-2000년 사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창업활동을 나타내고 있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NDES 2003; CEMPRE 2002).

<그림 1> 기업규모에 따른 신규창업(1996-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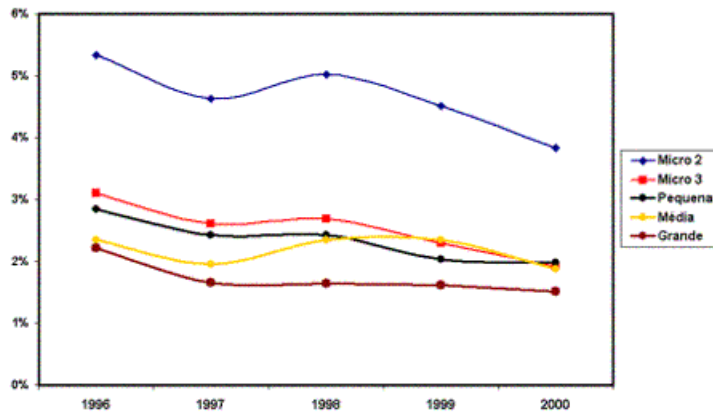


자료: BNDES- Demografia das Firms Brasileiras, 2003  
 종업원 수: Micro 2; 1-4명, Micro 3; 5-19명

기업규모에 따른 도산 및 폐업의 경우 영세규모 업체들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전반적으로 도산 및 폐업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2>), 특히 최근 Micro 2(항시 종업원 수 1-4명 규모)의 경우 도산 및 폐업율이 뚜렷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브라질 경제의

회복 추세와 맞물려 기업 생존율이 향상되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기업규모에 따른 도산/폐업(1996-2000)



자료: BNDES- Demografia das Firms Brasileiras, 2003  
 종업원 수 - Micro 2; 1-4명, Micro 3; 5-19명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의 창업, 도산 및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브라질 정부는 현 중소기업 창업 지원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중소기업의 도산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방향을 채택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기조로 채택하고 있다.

- 생계형 중소기업의 개업과 창업에 필요한 지식 훈련을 제공하는 개업 및 창업지도
-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향상에 필요한 경영지도,
-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개업 후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 대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및 불공정경쟁에 대한 규제의 강화

브라질의 중소기업지원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IBGE 2001).

- 지역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육성
  - 지역에의 밀착 및 경제자원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주된 담당자
  - 지역을 구성하는 다수로서의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이룩
  - 지역적 특성을 중시하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책 요구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 설비의 자동화 및 기술수준 향상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
  - 고부가가치제품으로의 사업전환과 고기술 중소기업의 창업활동 지원
- 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충
  - 소기업자의 경영개선 및 설비근대화 사업 지원
  - 상담 및 지도사업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유도
- 중소기업 조직화시책의 충실화
  - 조합기능 활성화로 연구개발 지원, 정보수집 및 제공
- 공정한 경쟁여건의 정비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제도의 보완 및 강화
  - 창업자에 대한 자금, 세제 및 기업설립절차의 간소화
-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
  - 근로자 복리후생수준의 향상 및 노동환경의 정비

그동안 브라질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정책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영 및 기술지도와 연수훈련 정책으로 크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경영 및 기술지도와 연수훈련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례가 증가하여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V. 브라질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브라질의 경우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기업이 고용 및 생산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의 제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에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능력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기업경영 측면에서 이들 소기업들은 가족주의적 경영관행으로 체계적 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생계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소기업들은 주로 생산에만 전념하고, 하청생산관계 혹은 OEM방식으로 이루어져 유통이나 마케팅은 대기업이나 외국무역상사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브라질에서는 소규모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80년대부터 그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여 경제악화에 따른 생계형 소기업 창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브라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은 국민의 생계기반일 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의 활력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그들 간의 심한 경쟁, 대기업과의 경쟁과 협력, 활발한 시장진입과 시장퇴출 등을 통해서 산업구조와 기업 활동에 활력을 넣어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오는 비능률을 막고 시장효율 즉, 시장경제 및 개방경제의 체제적 장점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존립조건의 형성과 광범한 존립분야의 확충이 브라질 중소기업정책의 기조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브라질의 중소기업정책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기조로 하여, 법률적인 제도보다 세부적인 실천항목으로 구체화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의 문제점들과 과제들에 대한 시급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 V.1.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브라질은 지난 1980년대에 외채위기와 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투자 여력의 부족으로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미흡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개혁이 추진된 1990년 중반 이후 인프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고,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선방향으로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주요 인프라에 대한 국가독점을 규정한 헌법개정 작업이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고, 1995년을 전후해서 정보통신, 도로, 전력 생산 및 유통,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의 민자유치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소 규모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아직 주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른 원가구조상의 부담, 경쟁력과 경영능력의 향상 저조, 생산성 저조 등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 V.2. 경쟁력 배양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브라질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은 더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정보 통신혁명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도 입지적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동태적인 비교우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이한 시장에서 상이한 제품 주기를 갖도록 상품차별화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량생산을 통하여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의 분산과 분담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선도기업은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결합생산과 생산물의 보완적 조합으로 체계적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투자 유인제도를 활용하고 차별적인 조세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기술적인 요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기술을 필요로 한 기업과 기술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중소기업에서도 누릴 수 있으며 표준화된 국제적인 품질 관리를 통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기술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편화되고 있는 인터넷, 위성통신, CAD, CAM,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MIS의 보급과 활용으로 회사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은 규모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과 정보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정보관련 인력의 공급과 훈련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 경쟁력 지원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구축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대기업과의 제휴 또는 동종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어 기업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V.3. 기업들 간의 관계 정립

다음으로 브라질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 간의 관계설정이다. 기업이 서로 경쟁상대가 되든지 아니면 협력적 관계가 되든지 기업들 간에 어떠한 형태이든 관계정립이 되어야 하며 검증하고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의 협력이야말로 경쟁우위의 원천인 것이다. 기업간의 협력은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전범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경쟁을 촉진시키느냐 협력을 유도하느냐의 원칙이 정해지면 기업간의 경쟁 관련 활동의 폭넓은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 V.4. 국제시장 접근 능력 배양

브라질의 중소기업은 기초 서비스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시장에의 접근능력의 부재와 내수 시장의 상실이라는 압박에 위협 당

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개방화와 기업 환경의 변화는 최근 브라질 중소기업들에게 대외무역을 개선해야하는 도전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 80년대를 특징짓는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제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경제를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총체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개도국들의 경제 전망은 점차 더 개방될 경제 환경에 최대의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에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 풍부한 천연 자원과 값싼 노동력의 의존을 줄이고 기술 혁신에서 얻어지는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브라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한 수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 박람회 참가, 해외 수출 콘소시엄과 자회사의 설립,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등을 장려하는 확실한 계획에 따라 기업투자의 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나 이를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러한 대외 경쟁력은 민관의 상호협조,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과의 협력,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 의한 총체적인 협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최대한의 가득률로 제품을 수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수출상품의 다양화,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과 진출은 자생력과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보제공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 지원 방안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VI. 결론

이제 브라질은 중소기업을 사회적·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하기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다양화와 공급 측면에서의 다품종 소량 생산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적합하다는 점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라는 인식하에서 육성되어야 하며, 산업발전의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은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심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전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하는 동시에 이러한 구조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 업종전망자료의 제공과 중소기업 정책 방향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여 중소기업 시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 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economic, social and industrial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Brazil with dramatic changes of industrial policy after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m. The legal status and definitions are evaluated, and also the SMEs related promotion policies are analyzed in order to find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SMEs' reality and the supporting policies.

It was found that SMEs policy in Brazil is excessively focused on small firms, ignoring medium-sized firms, and startup-for-subsistence. In order to gain competitiveness, more realistic and customized promotion policies are required. With the advent of new era, focusing on digital competence for all size of enterprises, SMEs, specially with its nature and problems, need special attention and supports from government and community in general in order to survive and grow. SMEs by its nature face shortage of human, financial, and technological resources. Brazilian



promotion policy of SMEs should focus on specifical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a starting step with digital competency.

Key Words: SMEs, Brazilian SMEs, SMEs' promotion policy / 브라질 산업정책,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제도

논문투고일자: 2004. 10. 10

심사완료일자: 2004. 10. 31

게재확정일자: 2004. 11. 20

##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9), 「한.브라질 21세기 협력 비전과 과제」.  
\_\_\_\_\_ (2004),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s Economica e Social-BNDES(2003),  
“Demografia das Firmas Brasileiras”, *Informe-se* No. 50, Jan.
- Cadastro Central de Empresas - CEMPRE(2002), *Nascimentos e Mortes  
de Empresas, 1997-2000*.
- ECLAC(2001),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World Economy,  
1999-2000 Report*, Santiago, Chile.
- \_\_\_\_\_ (2000), *Foreign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0 Report*, Santiago, Chile.
- Enterprise Research Institute for Latin America(1999), *From Intervention  
to Empowerment: A New Approach to Assisting SMEs in Latin  
America*.
- FUNCEX(2002), *Exportacoes de Micro, Pequenas e Medias Empresas  
no periodo de 1999-2000*.
- \_\_\_\_\_ (2002), *Exportacoes de Pequenas e Medias empresas: problemas  
e sugestoes para um associativismo*.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2000,2001,2002), *Executive Report*
- Instituto Brasileiro da Geografia e Estatistica-IBGE(2001), *As Micro e  
Pequenas Empresas Comerciais e de Servico no Brasil*.
- Servico Brasileiro de Apoio as Micro e Pequenas Empresas-SEBRAE  
(2000), “A Micro e Pequena Empresa no Comercio Exterior”,  
*Methodos Consultoria*, Aug.